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9년 6월 4일
담당부서	여성가족팀 폭력예방담당
담당자	김주희
전화	053.219.9975
e-mail	chu426@dwff.or.kr

대구여성가족재단,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6월 노인 대상 폭력예방교육 중점 실시

- 대구광역시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인 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노인 및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UN은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로 지원되는 교육이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및 예방을 위해 제정된 6월 15일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의 의미를 새겨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이 소외와 폭력 없는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인은 물론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노인 및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오랫동안 진행한 경험이 있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6월 5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생활

관리자 및 서비스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6월 14일에는 내당노인복지회관에서 지역 주민 및 노인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교육을 통합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 대구시민들은 예방교육통합사이트 (<http://shp.mogef.go.kr>)에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은 대구광역시가 2012년 6월 5일 설립한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의 Think-tank로서, 지역여성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이 모이고 나누고 소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